

“능숙한 전라도 사투리 전달 역할 기대하세요”

‘롱 리브 더 킹: 목포 영웅’ 19일 개봉... 배우 김래원

조폭 보스가 국회의원으로 비현실적 영웅담 실감 연기 정치 성향 없는 오락 영화

“사실 너무 동화 같은 이야기잖아요. 웹툰이 원작이고 조직폭력배 보스가 국회의원이 된다는 설정이 비현실적이긴 하죠. 그것도 여자 때문에...”

배우 김래원(38)은 영화 ‘롱 리브 더 킹: 목포 영웅’에서 그런 동화 같은 이야기를 현실적인 영웅담으로 설득력 있게 바꿔놓는 능력을 보여준다.

5일 서울 종로구 삼정동 한 카페에서 만난 그는 “그래도 실제처럼 능숙스럽게 연기했다”면서 “모두 저의 장점을 잘 끌어내 주신 강윤성 감독님 덕분에”라고 공을 돌렸다.

동명 웹툰이 원작인 영화 ‘롱 리브 더 킹’은 ‘범죄도시’를 만든 강윤성 감독 신작이다. 목포 지역 조폭 두목 장세출이 한 여자를 보고 첫눈에 반한 뒤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인생 목표를 바꾸고, 국회의원 선거까지 출마해 당선된다는 내용이다. 김래원은 “정치적 성향이 없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통쾌한 오락 영화”라고 소개했다.

김래원은 목표를 향해 거침없이 가는 ‘직진남’이자 순정남 장세출을 연기했다. 웹툰 속 캐릭터와 높은 싱크로율로 캐스팅 때부터 화제가 됐다. 그는 사랑에 빠진 한 남자의 달뜰 모습부터 조직 보스로서 카리스마까지 다채로운 모습을 선보인다.

김래원은 “장세출 캐릭터 자체가 영웅이고 멋진 남자여서, 제가 특별히 멋있어야 한다고 의식하지 않고 연기했다”고 말했다. 장세출은 요즘 말로 ‘순정마초’다. 겉으로는 무뎠속하지만 한 여자에게 순

애보를 바치는 남자다.

능숙한 전라도 사투리 연기를 선보인 그는 이 영화를 찍으면서 배역에 많이 동화됐다고 한다.

“저는 매 역할을 할 때 각 캐릭터가 가진 좋은 장점을 흡수하는 편이에요. 드라마에서 달콤한 남자를 연기했으면, 달콤함의 일부가 어느 순간 제 것이 돼 있죠. 그러면서 지금의 배우 김래원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제가 평상시 생각이 많은 편인데, 세출을 연기하면서는 많이 단순해졌죠.”

김래원은 강윤성 감독의 ‘열린 연출’ 방식에 거듭 찬사를 보냈다.

“감독님은 어떤 틀에 얽매이지 않고 그때그때 자연스럽게 만들어가죠. 촬영 당일 상의해서 대사가 바뀌는 경우도 제법 있었어요. 영화 첫 장면인 철거구역과 주민들이 대치하는 장면을 찍을 때도 보조 출연자까지 다 불러놓고 브리핑을 하셨죠. 30~40명이 모인 상황에서 감독님이 ‘술직이 이 장면을 어떻게 찍어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보조출연자 한명 한명까지 각자 상상의 나래를 펴고 연기할 수 있도록 열어놓으신 거죠.”

강 감독은 극 중 장세출이 목포 시민 앞에서 연설하는 장면도 큰 틀만 정해놓고, 김래원에게 맡겼다고 한다. 김래원은 “진짜 진심을 담아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가슴으로 연기했다”고 떠올렸다. 강 감독의 작업 방식과 연기 궁합이 맞은 김래원은 강 감독 차기작 출연 의지도 이미 밝혔다고 한다.

김래원은 영화에서 노래도 부른다. 노래방에서 김동률의 ‘사랑한다는 말’을 선곡해 첫눈에 반한 변호사 강소현(원진아 분)에게 우회적으로 사랑을 고백한다.

“목포 건달이면 왠지 ‘맹발’을 부를 것 같은데, 김동률 노래를 고르는 대목에서



장세출이 어떤 인물인지 알 수 있었죠. 저는 평소 노래방에 안 갑니다. 좋아하느는 노래요? 이선희의 ‘추억의 책장을 넘기면’을 즐겨 듣습니다.”

그는 연에게 소문난 낚시광이기도 하다. 그의 아버지는 계류 낚시 명인이다. 좀처럼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지 않는 김래원은 얼마 전 영화 홍보를 겸해 채널A

‘나만 믿고 따라와, 도시 어부’를 촬영했다. “장가도 가야 하는데, 지금은 영화와 낚시가 제 삶의 전부를 차지해 큰일이예요. 제 안에 ‘승부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낚시 역시 뭐가 잡힐지 모르고, 또 못잡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영화와 마찬가지로 재미가 있죠. 그래서 즐기는 것 같습니다. 하하” /연합뉴스

김아중 예능 ‘비밀 기획단’ 7월 JTBC 방송

하하·유세운도 공동진행... 시청자에 특별 이벤트 선물



JTBC ‘비밀 기획단’ 공동진행을 맡은 하하·김아중·유세운(왼쪽부터).

JTBC는 배우 김아중이 진행을 맡아 화제가 된 예능 ‘비밀 기획단’의 추가 출연진과 포맷, 방송 일정을 5일 공개했다.

다음 달 중 방송할 ‘비밀 기획단’은 시청자 사연을 신청받아 사랑하는 연인과 가족에게 세상에서 오직 하나뿐인 특별한 이벤트를 기획, 선물해주는 내용이다.

진행은 김아중과 가수 겸 방송인 하하, 개그맨 유세운이 맡는다. 이들은 프로그램 진행뿐만 아니라 이벤트 기획까지 맡는다.

세 명의 MC와 함께 ‘고백 쇼’를 기획하고 만들어갈 멤버로는 뮤지컬 ‘스트리트

라이프’, ‘카페인’, ‘뮤직박스’를 연출한 성재준 감독, 뮤지컬 ‘행보’, ‘킹 아서’ 등에 참여한 신은경 음악감독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총출동한다.

제작진은 “수백 명의 멤버들이 단 한 사람을 위해 춤추고 노래하는 초대형 스케일의 플래시몹과 영화, 뮤지컬이나 나열만 한 다채롭고 화려한 이벤트가 시청자의 눈앞에 펼쳐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제작진은 또 공식 홈페이지(tv.jtbc.joins.com/go100)를 통해 참가 신청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올리브 ‘밥블레스유’ 13일 종영... 시청자에도 시락 배달

올리브는 예능 ‘밥블레스유’가 오는 13일 방송을 끝으로 종영한다고 5일 밝혔다. 최화정, 이영자, 송은이, 김숙, 장도연이 출연하는 ‘밥블레스유’는 그들이 전국에서 올라온 고민과 사연을 접하고 그에 맞는 음식으로 사연자를 위로해주는 내용으로 젊은 여성 시청자 공감을 얻었다.

관련 콘텐츠 조회 수가 지난달 29일 기준 1억뷰를 기록하며 온라인 화제성도 쟁겼다. 제작진은 마지막 방송에서는 다섯 출연



자와 제작진이 ‘언니들의 도시락’을 준비,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는 이벤트를 여는 모습이 담길 것이라고 예고했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6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 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용왕님 보우하사(재)	35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전국시대	30 닥터 365 35 수상한 장모
[9]	30 KBS 뉴스 55 제64회 현충일 추념식	00 여름아 부탁해(재) 40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재)	30 930 MBC 뉴스 50 제64회 현충일 추념식	10 좋은아침 50 제64회 현충일 추념식
[10]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11]	00 동행(재) 55 나의 독립 영웅(재)	00 태양의 계절(재)	00 구해줘! 홈즈 1~2부 스페셜	00 녹두꽃(재)
[12]	00 KBS 뉴스 12 10 현충일 특집다큐 내 사랑	40 단, 하나의 사랑(재)	30 12 MBC 뉴스 40 검법남녀 시즌2(재)	10 SBS 뉴스 20 백중원의 골목식당 1~2부(재)
[1]	00 사랑의 가족 50 꼬마어사 콩도령 2	50 2019 프로야구 <한화:롯데>	50 MBC스포츠 2019 KBO리그 <두산:KIA>	40 2019 프로야구 <KT:LG>
[2]	20 시노스톤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3]	00 TV쇼 진품명품(재)			
[4]	00 전국이장회의 50 팔도밥상 스페셜			
[5]	00 KBS 뉴스 5 10 동물의 왕국 30 전국을 달린다 40 KBS광주연중특별기획 남도스페셜	30 옥탑방의 문제아들(재)	35 봄밤(재)	30 SBS 뉴스 40 올댓 스키이트 2019
[6]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50 용왕님 보우하사	
[7]	00 KBS 뉴스7 40 한국인의 밥상	50 태양의 계절	30 MBC 뉴스데스크	
[8]	30 여름아 부탁해	30 글로벌24 55 제보자들	55 봄밤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9]	00 KBS 뉴스9			
[10]	00 KBS 스페셜 55 오돌탈 김재동	00 단, 하나의 사랑	05 이상한 나라의 며느리	00 절대 그이
[11]	35 UHD 습터 40 네트워크 문화특선 올댓뮤직	10 해피투게더 1~2부	10 색선 TV 연예통신 1~2부	10 접속! 무비월드 1~2부
[12]	30 KBS 뉴스 40 인간극장 스페셜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15 스포츠 다이어리 30 문화사색	20 나이트라인 50 테마스페셜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30 통일의 길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07:00 용감한 소방차 레이 07:15 띠띠뽀 띠띠뽀 07:30 뽀로로와 노래해요 07:45 페파 피그 08:00 덩동댕 유치원1~2 08:30 피피루 안전특공대 08:45 방귀대장 뽕뽕이 09:00 마사와 꿈 09:30 물랑 09:4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뉴스 12:10 현충일 특집 다큐멘터리 <한국전쟁의 분수령, 장진호 전투> 13:40 다크 시선 14:30 띠띠뽀 띠띠뽀(재) 14:45 용감한 소방차 레이(재) 15:00 탐영 구조대 15:30 뽀로로와 노래해요(재) 15:45 꼬마히어로 슈퍼잭(재) 16:00 예술아 놀자 16:15 피피루 안전특공대(재) 16:30 덩동댕 유치원1~2(재) 17:00 EBS 뉴스	17:20 다크동화 달팽이 17:30 페파 피그(재)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1~5 19:00 레이디버그 19:30 생방송 판다다 20:00 갤럭시 프로젝트 20:30 아기 동물 귀여워 20:40 세계테마기행 <중국음식기행 4부 맵고 시고, 대륙의 짜릿한 맛> 21:30 한국기행 <여수의 사랑 4부 꽃길만 걷다보면 하회도> 21:50 다크 시선 22:45 다문화 고부 열전 23:55 EBS 스페이스 공감
--	---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子 36년생 상대의 논리에 빠져들 우려가 있다. 48년생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처리함이 효과적이다. 60년생 오해로 인한 시비가 보인다. 72년생 편협한 사고가 모순에 빠지게 한다. 84년생 변화에 상당히 영향을 주는 일들이 발생하겠다. 행운의 숫자 : 19, 52	午 42년생 변화무쌍한 가운데 희망의 조짐이 나타난다. 54년생 상호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좋다. 66년생 절제할 줄 알아야만 자유로운 운운이 가능하리라. 78년생 뜻밖의 인연을 주의해야만 발전을 기약한다. 90년생 끝나는 마당에 문제가 불을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93, 17
丑 37년생 기묘한 기운이 휘몰아치니 이변이 예상된다. 49년생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돌발적인 상황이 실제로 눈앞에 펼쳐질 것이다. 61년생 징후가 좋으니 분명히 길사가 일어날 것이다. 73년생 얻는 바가 상당히 많겠다. 85년생 활로가 트인다. 행운의 숫자 : 72, 06	未 43년생 잘 준수해야 진행에 차질이 없을 것이다. 55년생 작은 것을 얻으려다 큰 것을 잃을 수도 있음을 알라. 67년생 대안의 모색이 절실할 필요로 느껴진다. 79년생 투명하게 처리해야 한다. 91년생 크게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는 도량이다. 행운의 숫자 : 05, 71
寅 38년생 확산 일로에 놓이면서 폭발적인 동력을 띤다. 50년생 제반 준비를 해야 하리라. 62년생 주변의 기류에 영향을 받는다. 74년생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대단히 훌륭한 결과를 낳겠다. 86년생 목적이 분명해야만 명쾌한 결과를 도모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33, 91	申 44년생 면밀한 조처가 취약점을 병합하게 된다. 56년생 범을 잡으려거든 범의 굴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법이다. 68년생 조심하지 않으면 낭패를 본다. 80년생 이대로 가다가는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겠다. 92년생 예리한 탐색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행운의 숫자 : 56, 59
卯 39년생 개입하지 말고 잠자코 있는 것이 낫다. 51년생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63년생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우려곡절이 있을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성취하게 된다. 75년생 급할수록 돌아가는 것이 오히려 빠르다. 87년생 예상외로 빠르다. 행운의 숫자 : 26, 77	酉 45년생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순리에 따르라. 57년생 도모한다면 나머지는 따라오게 마련이다. 69년생 총체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81년생 불안감을 가질 이유가 없다. 93년생 실수가 잦을 것이니 상관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이 필요하다. 행운의 숫자 : 25, 87
辰 40년생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만 유혹하다. 52년생 대책 마련에 부심하게 된다. 64년생 서로 뜻이 어긋나지 않게 까 두렵다. 76년생 균형이 깨진다면 공동 탐도 무너지겠다. 88년생 오랫동안 준비하면서 갈급해 왔던 것이 곧 해결 되겠다. 행운의 숫자 : 91, 97	戌 34년생 겉터 낼 수만 있다면 대박이 날 것이다. 46년생 주된 것에 치중하다보면 부수적인 것에 소홀해진다. 58년생 할리성을 좇는다면 만사가 무탈할 것이다. 70년생 경계할 필요가 있다. 82년생 갈치라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 진정한 실속을 찾아라. 행운의 숫자 : 77, 10
巳 41년생 혼잡한 상태에서 순간간에 바쁘게 진행 될 가능성이 높다. 53년생 은연 자중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65년생 불편이 올 수 있으나 머지않아 해소되리라. 77년생 모두 알고 있다하더라도 또 살펴봐야겠다. 89년생 선의를 약용하려는 이가 보인다. 행운의 숫자 : 86, 08	亥 35년생 기대도 컸던 만큼 미련을 남기게 될 것이다. 47년생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낫다. 59년생 아예 오해의 소지를 만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71년생 내면에는 부실함이 많다. 83년생 커다란 관점으로 인해 더욱 깊은 수확을 얻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61, 31